

물러마티니코리아 프레스크퍼런스

세계적 불황을 견딘 비결은 바로 기술력



Press Conference



Mr. Rudolf Müller, Chairman of Müller Martini Group

April 1, 2010 Müller Martini Korea Ltd.



물러마티니코리아는 최근 물러마티니그룹 루돌프 물러 이사회 의장의 방한을 맞아 프레스크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물러마티니코리아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물러 의장은 최근의 세계적 불경기를 이겨낸 자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IPEX2010에 선보일 신제품 소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말했다.

급변하는 환경의 대응에 총력 기울여

최근 인쇄업계가 마주친 어려움은 전자 미디어의 등장, 많은 선진국들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 및 인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인쇄산업 역시 지난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고와 홍보 관련 시장은 두 자릿수 이상 축소되기도 했다. 물러 회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나 남미처럼 성장을 지속한 국가들도 있지만 선진국 시장에서 인쇄 장비의 통합이나 설비 과잉 같은 점들이 노출되었으며 전반적인 불경기를 겪어왔다”면서 “물러마티니는 고객사들이 다시금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짧은 운전 주기와 빠른 작업 회전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의 새 솔루션 공개

물러마티니는 5월 18일부터 개최되는 IPEX2010에 5개의 각기 다른 분야의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는 프리메라(Primera)중철기이다. 최고에서 최저에 이르는 폭넓은 속도를 각각 선보일 예정인데 최저 속도 부문에서는 중철기 모

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장점들을 지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즉, 자동화가 아닌 더 많은 가치에 집중된 모델을 선보이게 되며 적은 수의 장비와 적은 운영인원으로 제책라인 전체에 걸쳐 보다 많은 성과물을 얻고자 하는 고객사들의 필요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인 볼레로(Bolero) 무선제책 라인인 다양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린 새 정합라인을 장착했다. 3694정합기는 작업의 유연성이 좋은 제품으로 정합할 접지물을 대량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짧은 시간 안에 핫멜트 제책라인을 PUR제본으로 교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시장에서도 암-타임 정합기와 함께 구성되어 편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최근 인수한 Drent사의 보유 기술인 VSOP를 인수, 합병한 이후의 성과를 IPEX에 선보인다. 그라비아 및 플렉소 인쇄에서 오프셋인쇄까지 한 번에 생산하는 콘셉타(Concept)인쇄기는 이미 기존 고객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원격지원서비스(MM-Remote)를 IPEX에 선보인다. 다양한 제품이 원격지원 방식으로 디자인되며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는 디지털솔루션에도 적극 대응

물러마티니는 디지털솔루션을 통해 디지털인쇄기 제작사와 물러마티니가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디지털솔루션으로 디지털 프린팅시스템을 사용한 인라인 후가공 분야의 선두 주자로 고객들이 잠재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인쇄 시장에서 고객들의 요구는 소량으로 제품을 인쇄하는 것과 짧은 납기를 요구하고 있다. 물러마티니는 고객들에게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속도의 증가와 인쇄 품질의 향상이라는 장점을 제책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적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물러 의장은 “휴렛팩커드, 코닥, 오세 등 여러 공급자들의 잉크젯 인쇄 기술은 더욱 진보하고 있으며 보다 넓은 인쇄 폭과 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물러마티니는 이런 경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러마티니는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들에게 효과적이고 완전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물러마티니는 이미 판테라(Pantera), 아코로(Acoro) 또는 볼레로(Bolero) 등의 무선제책라인과 시그마라인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양장라인이나 중철라인과도 일체화된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친환경 경영의 첩경

물러마티니는 세계적인 화두인 친환경에 대해 간단하지만 원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제품군도 타사에 비해 30% 이상 에너지를 감축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성 있는 검증기관의 검사를 거친 것으로 공신력이 높다. 또한 최근의 추세인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손지를 줄이는 것이 용이해져 친환경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물러마티니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디지털 제책의 인라인화를 실천해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디지털인쇄시대를 맞아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인쇄산업에 대한 평가로 수출에 있어서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품질경쟁력 면에서는 충분한 우위를 갖고 있다며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가격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돌프 물러 이사회 의장은 지난 1988년 임원에 선임된 이후 91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